충무로 속설 중 하나가 스포츠 영화와 동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초 핸드볼을 소재로 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하 우생순)이 4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 그 편견을 멋지게 깨트렸다. 최근 충무로에선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에 배우들의 열연이 함께 만들어낸 '우생순'의 흥행 신화를 다시 쓰기 위한 스포츠 영화들이 속속 기획되고 있다. 대부분 '우생순'의 흥행 전부터 준비돼 온 작업들이지만 '우생순'의 성공으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국가대표' '돌 플레이' '킹콩을 들다'…

스포츠 영화가 뜬다

▲스키점프, 컬링, 역도 소재 다양

현재 충무로에서 준비중인 스포츠 영화의 특징은 비인기 종목, 그중에서도 동계 올림픽 종목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 많다는 점이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는 '오 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로 2연타석 홈런을 날린 김용화 감독의 '국가대표'다. 스키 점프의 불모지인 한국 선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든 '국가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스키점프 월드컵에 참가하게 된 '루저'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다.

영화의 배경은 1996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대규모 공사가 한창 중인 전북 무주. 미국 주니어 대표 출신 입양아 밥과 나이트 웨이터 흥철, 갈빗집 종업원 재복, 막노동꾼 칠구, 4차원 고등학생 봉구 등 7명이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과 스키점프대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최근 발표된 주연급 캐스팅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주인공 밥 역에는 '추격자'로 국내 뿐 아니라 칸 영화제에서도 최고의 찬사를 받은 하정우가 캐스팅됐으며 웨이터 흥철 역은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의 김지석, 칠구 역은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의 김동욱이 맡는다.

▲하정우·임창정 스타급 캐스팅

사람들에게 생소한 컬링을 소재로 한 영화는 두 편이 제작 준비중이다.

먼저 연기파 임창정이 주연을 맡은 '돌 플레이'는 '사람 냄새 나는 코미디'를 표방한 작품이다.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강원도 평창을 배경으로 귀향해 살아가던 실직자들이 강원도 전지훈련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컬링 선수단을 대신해 엉겁결에 대표선수로 뽑혀 경기에 나가게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릴 예정이다.

임창정은 귀향해 새로운 꿈을 꾸지만 폭설과 조류독감으로 파산 직전에 이르고 아내마저 어린 딸을 두고 도망가 버려 얼음 낚시터에서 일하는 주인공 양만춘을 연기한다.

송민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을 또

〈하정우〉

'우생순' 흥행 신화 다시 한번… 감동에 재미 더해

다른 컬링 영화 '롤링 스톤즈'는 우연히 컬링을 접하고 오랜 세월 국가대표 타이틀을 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건 한 인간의 집착을 경쾌하게 그리는 작품이다.

최근 시나리오 작업을 마친 박건용 감독의 '킹콩을 들다'는 여자 역도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지난 2000년 전국체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따낸 여고생 역사의 눈물에서 시작된 '킹콩을 들다'는 순창여고를 여자 역도의 메카로 만든 고 정인영 교사와 학생들의 스토리를 담은 휴먼 드라마이자 역도 경기의 역동성을 함께 보여주는 스포츠 영화다.

그밖에 여성 야구단의 이야기를 그린 야구 영화 '그린 라이트'(가제)도 제작중이다.

〈임창정〉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섹스 앤더 시티	캐리, 사만다 등 드라마 속 네명의 주인공들이 4년 만에 영화로 모습을 드러냈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걸스카우트	김선아, 나문희, 이경실 주연의 코믹 범죄 드라마. 곗돈을 지키기 위해 봉천 3동 그녀들이 뭉쳤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쿵푸 팬더	키 120㎝, 몸무게 160㎏에 이동속도 시속 30㎝의 팬더곰이 쿵푸의 달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디 아이	폭죽 사고로 시력을 잃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각막이식 수술 후 이상한 일을 겪는다.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라스베가스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	300만 달러를 차지 위해 조이(카메론 디아즈)와 잭(애쉬튼 커처)이 벌이는 기절초풍 동거 작전.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88분	범죄 심리학자 잭 그램(알 파치노)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바디	의문의 지갑을 줍고 난 뒤부터 매일 밤 악몽과 환상에 시달리는 내용을 다룬 태국의 공포물. 15세 이상 관람가.
상무(CGV),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위 오운 더 나잇	마피아로부터 생활의 터전인 나이트클럽을 지키기 위한 가족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CGV(첨단)	
인디아나 존스 4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인디아나 존스가 이번엔 전설의 크리스털 해골을 찾아 나선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겟썸	폭력에 살고, 폭력에 죽는 고등학생 이야기. 12세 이상 관람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언 왕자	페벤시 남매들이 마법의 힘을 빌려 다시 나니아 세계로 들어간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엔터	
스피드 레이서	비의 할리우드 데뷔작. 일본 애니메이션 '마하 고고고'를 원작으로 한 오락물. 12세 이상 관람가.
엔터	
아이언 맨	마블코믹스의 원작 만화 아이언맨을 SF 액션 장르로 영화화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주목! 이 영화

'쿵푸 팬더'

뚱뚱한 팬더곰, 유쾌·상쾌 쿵푸 무한도전

못 생긴 초록 괴물 '슈렉'을 탄생시킨 애니메이션 명가 드림웍스가 선보이는 작품으로 쿵푸를 소재로 했다.

평균 수면시간 22시간, 이동속도 시속 30㎝, 키 120㎝에 몸무게 160㎏인 초고도 비만팬더 포는 '평화의 계곡'에서 아버지의 국수 가게를 돕고 있다. 아버지는 국수의 비법을 알려줘 가업을 잇게 하고 싶지만, 포의 관심사는 오로지 '쿵푸 마스터'.

가게 일은 뒷전으로 하고 쿵푸의 비법이 적힌 용문서의 전수자를 정하는 '무적의 5인방' 대결을 보러 시합장을 찾은 포는 마을의 현인 우그웨이 대사부로부터 용문서의 전수자로 점지 받는다.

무적의 5인방은 물론 시푸 사부 역시 이 사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용문서를 노리고 어둠의 감옥에서 탈출한 타이렁이 마을을 습격해오자 그를 막아야 하는 미션이 포에게 떨어진다.

영화의 기대감을 높이는 건 황금 목소리 캐스팅.

뚱뚱한 팬더곰 '포' 역을 맡은 잭 블랙은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적임자로 꼽히며 신장 60㎝의 너구리 시푸 사부 역의 더스틴 호프만을 비롯해, 타이그레스 역의 안젤리나 졸리, 몽키 역의 성룡, 루시 리우 등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다.

쿵푸 마스터가 되기 위해 갖가지 훈련을 받는 포의 모습과 원숭이, 사마귀, 호랑이 등 갖가지 동물 캐릭터가 선보이는 쿵푸 실력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